

사상충병(象皮病) 조사記

糸狀虫病

〔上〕 우리나라 蔓延지대를 가다



李 純 炯

하늘에는 은하수가 가로 질려 있고 전우와 직녀성의 별빛이 찬란하다. 서울에서는 밤하늘을 쳐다볼수 없었는데 이곳 제주에 오니 옛날 동심에서 바라보던 하늘을 되찾은것 같아 즐겁기만 하다. 별빛에 시계를 보니 밤 11시30분.

「있으과?」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제주도 사투리. 잠시 아무 대답도 없고 검푸른 바다의 파도소리만 들린다. 「있으과?」 다시 소리높여 불러본다. 방안에서 부스럭 부스럭 옷입는 소리가 나더니 「누구요?」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울서 상피병 피검사하러 왔으다」 하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안할구다」 하는 안주인의 좀 앙칼진 목소리가 컷전을 때린다.

「제기랄!」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지만 별수없이 거무틱틱한 돌담을 돌아나온다. 얼마전까지 즐겁던 기분이 싹 가시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진다. 그러나 다시 도리켜 생각하면 주민들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이해된다. 하루종일 밭에 나가 멍뭍에서 일하다가 모처럼 단잠에 빠졌는데 느닷없이 피를 빼려고 텁벼드는 해방꾼의 침입을 받으니 선선히 응할리가 있겠는가? 또 벌리 배를 타고 나가 며칠씩 지내다가 모처럼 집에 돌아와 부부가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데 난데없이 피를 빼러 왔으니 부인이 신경질이 날만도 하지,

나라도 안하겠다 할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왜 피검사를 밤에만 해야 하는가 하는 일인데, 이상하게도 상피병을 일으키는 사상충의 애벌레가 꼭 한밤에만 피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도깨비나 박쥐처럼 밤에만 일하게 되는데에 이런 루대접을 받는 원인이 있다. 왜 밤에만 나타나느냐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사상충병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하는것이 순서가 맞을것 같다.

사상충(일명 휘라리아)이란 문자 그대로 길이가 암컷은 약 10cm 되는 실같이 가늘고 길게 생긴 기생충으로 숙컷은 이보다 반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림프관속에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병을 일으키게 된다. 즉 몸살같이 열이 나고 온몸의 마디 마디가 아프며 근육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제주도 지방에서는 「몸살」 또는 「강몸살」이라 하여 잘알려진 병이다. 그리고 벌레가 들어가 있는 부위에는 몸살이 날때 벌겋게 붓고 아프기도 하여 이 지방에서는 「피내림」이라고 부른다. 이런 증상이 몇년씩 계속되며, 일을 좀 심하게 하거나 무리를 하면 일년에도 몇번씩 앓게 되기 때문에 피내리는 처녀는 시집도 못갈 정도이다.

이렇게 몇년을 앓다가 보면 벌레가 들어가 막고있쁜 림프관이

아주 막혀 버리고 벌레가 죽으면 림프관과 유착이 되어 림프액이 흘러서 정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그 림프액이 다리의 조직에 쌓이게 되고 그위에 우리몸에서 여러가지 세포가 많이 모여들어 붓게된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다리의 두배가량 심하게 붓고 한번 부으면 평생토록 낫지않고 그대로 있으니 자선미는 따질수도 없거니와 결국은 불구자가 되고 만다. 거기에다 그 다리로 일을 하자면 자연 여기저기 부딪치게되어 상처가 나고 또 여러가지 종기가 잘생겨서 종래에는 피부가 코끼리가죽처럼 되기때문에 이런 시기를 특히 상피병이라 일컬게 된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사상충병을 일으키는 벌레의 종류는 반크류트 사상충과 말레이사상충 두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것은 말레이사상충으로 전자에 비하여 증상이 좀 가벼운 편이다. 반크류트사상충에 걸리면 다리뿐 아니라 팔과 생식기도 통통 붓고 림프액이 오줌으로 나오거나 복수(腹水)라 하여 배에도 물이차는 증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개 팔, 다리가 붓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말레이사상충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병을 「수종다리」 「다리몸살」등으로 불리우는 고장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상피

병의 정체가 알려진것은 윤일선 박사가 1927년에 충남주민을 부검하다가 사상충을 발견하데서 비롯된다. 그뒤로는 오한영(1929) 오세남(1930), 문인주(1940), 妹尾등 여러 선생들이 연구를 계속 하였었다. 전국의 분포를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로는 Senoo-Lincicome (1951)의 논문이 있는데, 이분들에 의하면 남한 5,000명의 조사대상자중 604명(12%)에서 피속에 애벌레가 검출되었다 한다. 그중에서도 제주도에서는 26.6%나 양성으로 나와 가장 높은 감염율을 기록하였었다. 이런 사실은 그후 이근태박사등(1961, 1964)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필자가 소속하였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풍토병연구소에서는 이 사상충증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소장 서병설 교수를 중심으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번째로 우선 가장 감염율이 높다고 알려진 제주도에 있어서의 지역적 분포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얘기하였드시 피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주민들을 끈기와 성의로서 설득하여 2,139명을 조사한 결과 183명(8.6%)의 애벌레양성자를 가려내었다. 그들의 분포는 대부분이 남제주군에 많았으며 특히 남원면 위미리, 태흥리등지에서 가장 높다는것을 밝혀내었다.

한편 전국적인 분포를 알기 위하여 군의진의 협조를 얻어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는 전국의 장정들을 대상으로 역시 밤에 피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총 30,534명의 혈액검사를 마쳤는데 이는 국내최대규모의 조사일뿐 아니라 그 정밀성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허락치 않는 연구였다. 이 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우여곡절은 필설로 다 형언키 어려우며 다만 결과적으로 제주도, 경상북도 산간지방, 전라남도 해안지방에 많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뒤에 서병설교수팀은 제주도 사상충증 환자 285명에게 반크로트사상충의 특효약인 디에칠 카바마진을 시험적으로 주어본 결과 100%의 치료효과를 얻어 우리나라의 사상충이 이약에 대단히 잘 듣는다는것을 입증하였다.

다만 이약을 먹으면 피속에 있던 애벌레가 죽기때문에, 이것이 분해되면서 우리몸의 단백질과는 다른 이종단백으로 작용, 알려지성 과민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때에는 꼭 몸살할때와 같은 고열, 두통, 사지통이 나오므로 환자들은 이약을 먹기를 꺼려하였다. 어느 동리에서는 멀쩡한 사람에게 병이나는 약을 주었다고 진료반 자동차의 유리를 깨는등 행패를 부리고 투약한 의사의 목살을 잡는등 소동을 피웠으나, 일년후 피검사에서 깨끗이 나왔음을 알았

을때는 대단히 고마워 하였고, 오히려 눈치만 보고 숨어있었던 환자들도 자진해서 약을 먹겠 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에 용기를 얻은 서울의대 연구팀은 앞서의 연구조사 및 치료 효과의 결과를 제주도당국 및 정부당국에 제시하고 사상충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주도에서 집단검사 및 집단치료를 실시할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사상충병을 제주도 보건정책의 제일 목표로 정하고 각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 및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디에칠·카바마진도 다량도 입하여 치료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였다.

한편 서울의대 풍토병연구소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적극추진하고 사상충병의 여러가지 미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제주군 서카포에 분원을 설치 하였다. 1970년 8월 문을 연 이 연구소 분원은 건평 50여평의 콩크리트건물로서 각종 연구시설, 사무실, 연구원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상충병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곳에서 연구가 된 사업들은 사상충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종류를 결정한것을 비롯해서, 마레이사상충의 모기내에서의 발육과정, 사상충 애벌레의 정기출현성(밤에만 나타나는 성질)에 관한 연구, 위머리에서의 집단치료 시

범사업, 이 약을 주었을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한 감람요법, 기타 동물감염실험등 중요한 업적이 많이 나왔다.

이 제주도에서의 시범연구가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 경북의 내륙지방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륙지방의 사상충병과 제주도의 사상충병의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도 및 경북지방의 사상충병은 동일한것으로 알려졌고 그 양상이 대동소이 하지만 제주도가 더 심하게 감염되어 있는것이 다를 뿐이다. 다만 사상충병을 매개하는 모기가 제주도에서는 해변가 소금끼가 있는 물에서 발육하는 도고술모기인데 비하여 경북 내륙지방에서는 학질모기가 중요한 매개곤충이라는 점이 크게 다른 차이로 하겠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부교수·의박〉

〈표지에서〉

감과 빨간 새

빨간 감빛이 물들었을가. 빨간 단풍이 물들었을가. 빨간 가슴을 가진 새 한쌍이 감나무 가지에서 정답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감빛과 같은 빨간색의 가슴을 가진 새 한쌍이. 빨간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는 빨간새 한쌍이.

아마 마음도 빨간가 보다. 빨간마음이 가슴에 배었나 보다.

〈김 평 화〉